

전국 수도권

“남북교류협력, 접경지역 중심 패러다임 필요”

등록 :2022-02-18 15:34 수정 :2022-02-18 15:39

신한대-연천군, ‘한반도 경계횡단연합’ 국제학술대회

[국제학술회의]

한반도 경계횡단연합과 연천군: 남북교류협력의 지방 중심 패러다임

2022년 2월 18일(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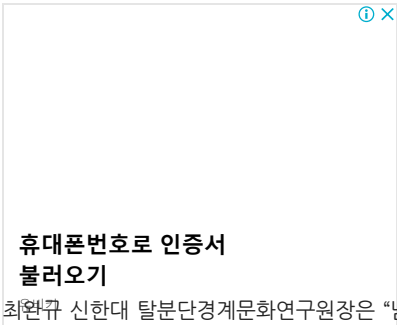
유튜브 생중계 연천군 <https://www.youtube.com/연천군>

문의 : 신한대학교 탈분단경계문화연구원 031-870-3799 / panicks@naver.com

순서	내용
9:20~9:30	개회식
9:30~10:00	기조강연 경계의 문, 횡단의 다리 발표: 박명규(대한민국, 광주과학기술원 초빙석학교수)
10:00~12:00	세션 1부: '방법으로서의' 경계횡단지역 사회: 이경록(대한민국, 신한대학교) 발표1: 유럽 접경지역 협력사회 분석과 시사점 - 고상두(대한민국, 연세대학교) 발표2: 아일랜드의 북-남 협력과 경계의 변형 - 데이비드 미켈(아일랜드, 트리니티컬리지 더블린) 발표3: 접경도시의 분단과 화해: 괴물리스 즈고젤레츠 사례연구 - 최진철(대한민국, 한국해양대학교) 토론1: 남영호(대한민국, 신한대학교) / 토론2: 존 엘리리(대한민국, 연세대학교) / 토론3: 박세진(대한민국, 전북대학교)
13:30~15:30	세션 2부: 경계의 다층성과 중앙/지방 관계 사회: 이찬수(대한민국, 보훈교육연구원) 발표1: 접경지역과 포스트 영토주의 접근 - 황전태(대한민국, 통일연구원) 발표2: 험한 바다를 가로질러 운전하기: 중국의 대만 운전자의 경계 다시 만들기 - 주형이(타이완, 국립타이완대학교) 발표3: 그뤼네스 밴드(Grunes Band), 남전의 경계선을 생명과 평화의 공간으로: 독일 통일 후 그뤼네스 밴드의 발전 과정과 다층적 거버넌스 - 한상민(대한민국, 한림대학교) 토론1: 이승욱(대한민국, 카이스트) / 토론2: 한재현(대한민국, 동국대학교) / 토론3: 김태경(대한민국, 국회미래연구원)
15:40~17:40	세션 3부: 경계횡단연합과 연천군 사회: 이해정(대한민국, 중앙대학교) 발표1: DMZ의 진정성, 한계와 가능성 - 김지나(대한민국, 서울대학교) 발표2: DMZ와 생태평화: 철원 두루미와 함께 살기 - 주윤경(대한민국, 서울대학교) 발표3: 남북공유하천 위기와 상생 - 장석환(대한민국, 대전대학교) 토론1: 김동성(대한민국, 경기연구원) / 토론2: 박경만(대한민국, 한겨레신문사) / 토론3: 이경훈(대한민국, 경기연구원)

신한대학교 탈분단경계문화연구원과 경기 연천군은 18일 ‘한반도 경계횡단연합과 연천군: 남북교류협력의 지방 중심 패러다임’을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열어, 한반도 등 세계 각국의 접경지역에서 분단과 대립을 극복하기 위해 진행된 프로젝트를 살펴보고 실현방안을 모색했다.

비대면으로 열린 이날 학술대회에서 박명규 광주과학기술원 초빙석학교수는 기조강연을 통해 “연천군을 비롯한 휴전선 일대는 한반도의 전형적



경계지대다. 그만큼 단절의 고통을 겪은 곳이지만 이곳은 남북을 가로지르는 길과 다리가 놓인 곳이며, 때가 되면 각종 물자와 사람이 그 경계를 넘나들게 될 경제협단의 장소이기도 하다”며 “이곳이 만남과 소통의 장소, 관광과 교육의 현장, 생태적 발전의 새모델을 보여주는 공간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계와 횡단이 가져올 이익과 편리를 상상할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밝혔다.

최원규 신한대 탈분단경제문화연구원장은 “남북한 교류협력사업에서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왔지만 중앙과 구분되는 지방의 역할이 무엇이며 무엇을 중심에 놓고 어떻게 교류협력을 제안하고 실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아직 부족하다”며 “경제협단연합은 중앙의 관점에서는 충분히 포착하기 어려웠던 접경지역의 문제를 지역의 관점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실천”이라고 설명했다. 최 원장은 “이미 세계 각지에서 분단과 대립을 극복하려는 프로젝트, 경제하천, 천연자원의 공동 이용과 관리, 환경오염 문제, 멸종위기 동식물 보호, 기반시설 등 여러 방식으로 경제협단연합이 진행돼왔다.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한반도의 경제협단연합의 가능성과 실현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학술회의는 아일랜드, 독일, 중국과 대만 등 외국 접경지역과 한반도 비무장지대(DMZ) 일원의 경제협단연합 방식을 살펴보는 등 총 3개 세션으로 꾸러졌다. 첫 번째 세션에서 고상두 연세대 교수는 ‘유럽 접경지역 협력사회 분석과 시사점’을, 데이비드 미첼 아일랜드 트리니티컬리지 더블린 교수는 ‘아일랜드의 북-남 협력과 경계의 변형’을, 최진철 한국해양대 교수는 ‘접경도시의 분단과 화해:괴를리츠 즈고젤레츠 사례연구’를 발표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 황진태 통일연구원 박사는 ‘접경지역과 포스트 영토주의 접근’을, 주링이 타이완 국립창화사범대 교수는 ‘험한 바다를 가로질러 운전하기:중국의 대만 운전자의 경계 다시 만들기’를, 한상민 한림대 교수는 ‘그뤼네스 반트, 냉전의 경계선을 생명과 평화의 공간으로-독일 통일 후 그뤼네스 반트의 발전 과정의 다층적 거버넌스’를 발표했다.

마지막 세션에서 김지나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전문위원은 ‘디엠제트의 진정성, 한계와 가능성’을, 주윤정 서울대 인권센터 선임연구원은 ‘디엠제트와 생태평화: 철원 두루미와 함께 살기’를, 장석환 대진대 교수는 ‘남북공유하천 위기와 상생’을 각각 발표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